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lderfer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오민지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lderfer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수 영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오 민 지

오민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김 병 섭 (인)

부 위 원 장 박 순 애 (인)

위 원 이 수 영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인간의 기본 욕구는 Alderfer(1972)의 E.R.G.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상향적 확산이론 (bottom-up spillover theory)에 따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하위 요인들에 대한 만족이 축적되어 상위개념인 행복에 이른다. 이는 곧 개별 생활영역에서의 만족이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의 결정요인을 욕구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 행복연구와 욕구이론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행복을 정의하고 측정하는데 집중해왔으며, 욕구의 만족이 행복감과 연결된다는 욕구이론의 기본전제에도 불구하고 욕구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행복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행정학적으로 의미가 크며, 특정 직업군이나 세대가 아닌 전국수준의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 확보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비교된다.

연구의 독립변수는 Alderfer의 존재의 욕구(Extendence Needs), 관계의 욕구(Relatedness Needs), 생존의 욕구(Growth Needs)이며 종속변수는 행복이다.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행복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기본 욕구 모두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추가될 때마다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행복, 국민행복, 욕구이론, 상향이론, 생활 만족도

학 번: 2013-21903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	3
제 2장 이론적 배경	5
제 1절 행복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
1. 행복(Happiness)의 정의 및 분류	5
2. 행복의 확산이론(Spillover theory)	9
3. 행복의 측정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12
제 2절 욕구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4
1. 욕구이론(Need theory)의 개요	14
2. 욕구이론의 흐름과 비교	15
3. Alderfer의 E.R.G.이론 적용	22
4. 욕구이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24
제 3절 욕구이론과 행복의 관계	27
1. 욕구이론과 행복의 관계	27
2.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	30
제 3장 연구설계	32
제 1절 연구의 분석틀	32
제 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1. 종속변수	34
2. 독립변수	34
3. 통제변수	38

제 4장 분석결과	39
제 1절 기초통계량 분석	39
1. 기초통계량 분석	39
2.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분석	41
제 2절 변수 간 상관관계	46
제 3절 분석결과	48
1. 다중공선성 검증	48
2. 다중회귀분석 결과	50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55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60
참고문헌	63
Abstract	73

표 차례

<표 2-1> 행복의 유사개념 분류	6
<표 2-2> 만족감의 네 가지 분류	8
<표 2-3> 욕구이론의 구성요인 비교	15
<표 2-4> Comparison of Maslow and ERG concepts	18
<표 3-1> 한국인의 행복요소와 생존·관계·성장욕구이론에 따른 재분류	35
<표 3-2> 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른 욕구유형 분류	38
<표 4-1> 인구사회학적 통계	39
<표 4-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42
<표 4-3>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44
<표 4-4>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45
<표 4-5>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46
<표 4-6>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47
<표 4-7> 다중공선성 검증	49
<표 4-8> 모형요약	50
<표 4-9> 회귀분석 결과	51
<표 4-10> 가설검정	54
<표 4-11>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요약	55
<표 4-12> 위계적 회귀분석 요약	56
<표 4-13> 항목별 평균과 베타값 비교	58

그림 차례

<그림 2-1> 상향화산이론과 하향화산이론	11
<그림 2-2> Herzberg의 2요인 이론	19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33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행복(Happiness)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연구대상이다. 행정학을 비롯하여 심리학과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복연구의 대부분은 행복의 결정요인을 찾는 연구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이 논의에 포함된다. 본 논문은 여러 행복에 관한 요인 중, 행복에 관한 상향식 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의 관점에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행복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은 크게 상향 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과 하향 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Campbell, 1976; Diener, 1984) 확산이론의 접근방법을 행복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하고 있다. 행복에 관한 상향이론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하위영역들에 대한 만족이 축적되어 상위개념인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¹⁾을 이룬다고 주장한다(Sirgy et al, 2010). 반면에 하향이론은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이 삶의 각 영역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김병섭·이수영·안선민, 2015).

상향식 접근방법으로서 행복을 바라보는 것은 행복1에 영향을 미치는

1)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행복(happiness)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과정에서 이들 개념을 행복(happiness)과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하고자 한다.

개별 요인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가 크다. 국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며, 행정이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실행하는 것은 행정이 추구해야하는 것 중 가장 핵심적인 것에 속한다(정정길, 2011:122). 이러한 맥락에서 행복 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부 정책단위에서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의 결정요인들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연관시켜 생각하고자 한다. Maslow(1954)나 Alderfer(1969)등이 주장한 욕구이론(Need theory)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며 이를 욕구를 통해 동기부여(motivation)된다. 이에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들의 충족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행복을 인간의 욕구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최근 국내의 일부 연구(김명소·한영석, 2006; 손지현, 2013)에서 Alderfer의 E.R.G.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행복을 연구한 바 있다.

오늘날까지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개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행복척도 및 지표를 개발해 왔다. 연구의 양상은 시대나 국가 혹은 학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나, 대개 과거 국내총생산(GDP)과 같이 경제적인 요인만을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보았던 것에서 변화하여 최근에는 서베이 등을 통해 직접 지표를 개발하는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연구는 지표나 공식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여 이론적 틀 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행복을 결정하는 하위요인들과 행복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lderfer의 E.R.G.이론을 이론적인 기반으로 하여 행복의 결정요인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적 욕구의 만족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 행

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라 각각의 인간 욕구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책들을 욕구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하위욕구들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Alderfer의 ERG(Existence·Relatedness·Growth)이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기본적 욕구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분석을 통해 도출할 것이다.

연구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연구에 관한 자료는 2012년 말 총 23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 연구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다. 이 조사는 대한민국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로 설문의 문항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지표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행복에 대한 인식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설문의 연구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동일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 지역 제외 제주도와 전국 8도 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450명을 목표 표본수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본의 경우 표본추출 방법, 조사비용, 조사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지역과 성별 그리고 연령을 고려한 할당표본추출을 통해 정하였다고 한다. 연구기간은 2012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 까지 총 23일이며, 연구방법은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RDD의 Dual Frame 전화조사

를 통해 이루어졌다.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는 특정지자체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표본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합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ver.18)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변수 간 실증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행복과 욕구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문헌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연구의 이론적인 토대를 확립할 것이다. 이후,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기반으로 계량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고 연구 결과의 의미에 대해 정책적인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행복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행복(Happiness)의 정의 및 분류

행복(Happiness)이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으로 이전부터 철학, 경제학,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서 행복을 정의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Argyle, 2001; Veenhoven, 2012; Easterlin, 1974; Duncan, 2013).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행복은 대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과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Graham, 2012), 특히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행복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김명소 외, 2003).

행복과 관련한 개념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Gray et al., 2008), 어떠한 개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행복을 구성하는 요건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들의 정책적 함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개념의 비교를 통해 행복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행복의 개념구분은 행복을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주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과 객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복의 객관적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경우, 보통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에, 행복의 주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우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나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김윤태, 2009).

<표 2-1> 행복의 유사개념 분류

강조점	개념	설명
객관적	삶의 질 (quality of life)	행복감과 더불어 소득이나 생활여건과 같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구교준 외, 2014; 손건섭, 2011).
주관적	주관적 안녕 (subjective well-being)	쾌락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즉각적인 감정(feeling)이나 정서(emotion)을 행복으로 보는 입장(우창빈, 2013).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삶의 일부나 전반에 대한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만족감

먼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객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에서의 삶의 질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심리학에서의 삶의 질 개념이다.

사회학에서 흔히 말하는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이 외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훈구, 1997). 현재 많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논의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용어는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사회학적 삶의 질에 해당한다. 객관적인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들(Liu, 1976; Morris, 1979; Cereseto & Waitzkin, 1986)에 따르면 삶의 질이란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외부환경 조건의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신영·백혜정, 2008). 여기서 외부

환경 조건이란 교육수준, 소득, 나이, 성별, 여가시간 등 측정될 수 있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표를 말한다.

객관적 지표를 측정하는 삶의 질 연구는 개인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과 동시에 개인의 객관적 삶의 질이 행복수준과 깊은 관련이 없다는 회의적인 연구결과들이 나타나면서(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오늘날 삶의 질 개념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행복감과 더불어 소득이나 생활여건과 같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평가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여겨진다(구교준 외, 2014; 송건섭, 2011). 박종민·김서용(2002)은 행복과 삶의 질 간의 개념구분에 관하여 행복은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삶의 질은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복과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쾌락주의 입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개인의 즉각적인 감정(feeling)이나 정서(emotion)를 행복으로 보는 입장이다(우창빈, 2013). 주관적 안녕에 대한 관심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심리학자들은 종전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객관적 지표에 의한 삶의 질을 주관적 인식이나 지각으로 변화하여 ‘주관적 안녕’이나 ‘행복’이라고 명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이훈구, 1997).

Diener(1984)은 행복을 주관적 안녕으로 정의하고 객관적 조건이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 행복이 정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안녕은 다시 정서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입장과 인지적 평가를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즐거운 감정(pleasant affect)이나 불쾌한 감정(unpleasant affect) 등 삶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감정이 어떠한지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 삶에 대한 만족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향후 언

급할 삶의 만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지적 평가를 중요시하는 입장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측정은 직장, 가정, 경제 등 삶의 구체적 영역들에 대한 개별적 만족감을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관적 안녕은 학자마다 개념정의의 차이는 있지만 삶의 총체적인 만족감이기 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즉각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념들과 구분된다. 하지만, 이를 주관적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 행복 등의 개념과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은 삶의 일부나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말한다. Veenhoven(1999)는 만족(satisfaction)을 범위(scope)와 시간(time)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만족은 쾌락(Pleasure), 부분적 만족(Part-satisfaction), 절정 경험(Peak-experience),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으로 분류된다.

<표 2-2> 만족감의 네 가지 분류(Veenhoven, 1999)

	일시적	지속적
삶의 일부	쾌락(Pleasure)	부분적 만족(Part-satisfaction)
삶의 전반	절정 경험(Peak-experience)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

행복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는 포괄적 개념으로 개인의 정서적 상태와 함께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우창빈, 2014). 때문에 앞서 언급한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과 같은 개념과의

미는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적 배경을 가지고 논의해야하는 것으로 이해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Veenhoven(1999)은 행복을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the overall appreciation of one's life as a whole)’으로 정의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Veenhoven(1999)의 행복개념에 차안하여 행복을 ‘개인의 삶 전체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의 생활여건이나 경제적·물리적 지표의 높고 낮음은 주관적 행복감과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또한, 앞서 언급한 행복 유사 개념 중 주관적 의미의 삶의 질, 주관적 안녕, 그리고 삶의 만족보다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개념이다. 이 행복의 정의에 따라 정부는 개별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수준과 같은 물리적 지표의 상승 외에 다양한 개인 삶의 만족감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2. 행복의 확산이론

본 연구는 행복의 확산이론(spillover theory) 중 하나인 상향이론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확산이론은 상위수준의 만족인 행복과 하위수준의 만족인 개별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감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근래 심리학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Diener, 1984). Loscocco & Roschelle(1991)에 의하면 1970년대 직업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관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확산(spillover), 보상(compensation), 분할(segmentation)에 관한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중 확산이론은 행복감이 확산되는 과정을 상향(bottom-up)적 접근과 하향(top-down)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개인 행복감의 원인과 확산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행복에 대한 상향적 접근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하위 요인들에

대한 만족이 축적되어 삶 전반에 대한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개별 하위 요인들은 소득, 여가생활, 가족, 직업 등 실제 생활영역의 요인들을 말한다. 상향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소득이나 여가생활과 같은 개별 삶의 생활영역들에 대한 즐거움이 확산되어 상위수준의 만족인 행복으로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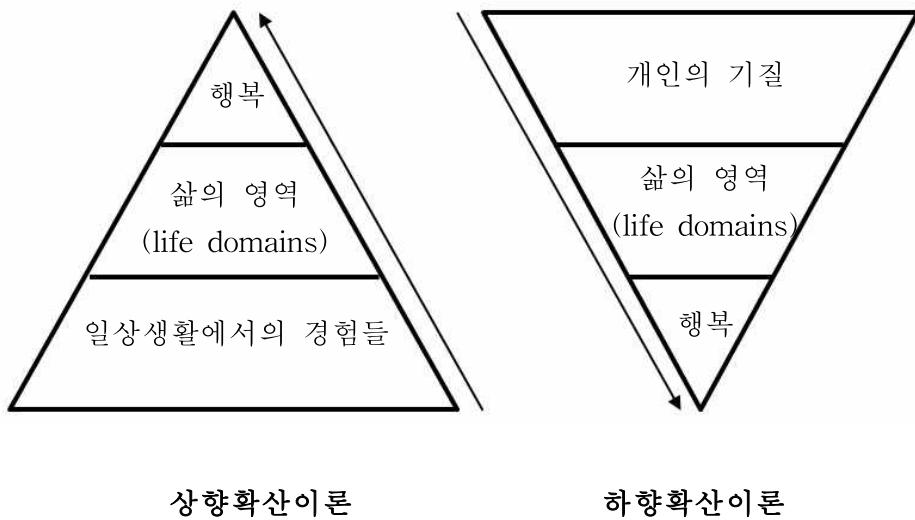
이와 대조적으로, 하향적 접근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전반적 생활에 대한 경향(global propensity)이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Diener, 1984). 하향이론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이라도 쉽게 만족감을 느끼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경험을 하더라도 만족감을 느끼기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위수준인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의 확산이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행복의 확산에 관한 두 관점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관점이 현실에 더 적합한 것인지 규명해내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본래 행복은 주관적 개념으로 감정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상향(bottom-up)적 접근과 하향(top-down)적 접근은 어떠한 관점이 사실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근의 선행연구들(Diener, 1984; 구재선·김의철, 2006)은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의 관계를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두 관점 모두 연구의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향이론의 관점을 이론적인 바탕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Diener(1984)는 그의 연구에서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특정한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곧 상향식 접근방법이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행복에 대한 상향식 접근방법은 개별 생활영역에서의 만족감이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의 원인된다는 관점으로, 행정학적으로도 갖는 의미가 크다. 상향이론에 따르면 개별 생활영역에서 국민의 만족을 이끌

어내는 정책들이 전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국민행복의 증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향이론을 연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개별 하위 영역에서의 개인의 만족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측정할 것이다. 상위 개념인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느끼는 삶에 대한 행복감을 의미한다.

<그림 2-1> 상향확산이론과 하향확산이론(고명철·최상옥, 2012
재구성)



3. 행복 측정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행복의 측정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는 시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는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과거 행복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는 국내총생산(GDP)이었다. 이 방법은 행복을 경제학적 접근법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행복해진다는 믿음 하에 행복을 측정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그 나라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현재는 경제수준을 행복수준과 동일하게 간주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수준이 곧 행복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오늘날에도 경제수준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GDP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자각이 생긴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GDP를 대체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에 대해 연구하는 초석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지표체계로는 유엔의 인구사회통계체계(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나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등이 있다(김명소·한영석, 2006). 최근에는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주관적인 행복감을 측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자들마다 나름의 지표개발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행복 측정지표연구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Campbell et al. (1976)의 경우 Bradburn Scale of Affect Balance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즐거움의 경험(experience of pleasantness)과 불쾌한 경험(experience of unpleasant pleasantness)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1985)에 의해 만들어진 SWLS(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는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지표이다. 이 척도는 생활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간 차이 정도, 원하는 생활의 변화 정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소유 정도 등 삶의 만족도를 묻는 총 다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척도로 평가된다. Ryff & Keyes(1995)에 의해 개발되고 역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PWBS(Personal Well-Being Scale)는 자아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인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의식(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등 총 6개의 하위 요인들이 각각 20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에 대한 개별 응답의 합산점수로 각 하위 요인을 평가한다. PWBS를 간편화한 간편척도는 일반적으로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간편척도의 경우 하위영역 당 세 개의 문항씩 총 6개 분야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행복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명소·한영석, 2006; 최영출·이지혜, 2013; 문승연·최인숙, 2011; 박민자, 2006; 추홍규, 2005; 구재선, 2009; 김진주·구자영·서은국, 2006; 이지혜, 2010; 김신영·백혜정, 2008). 행복의 측정방법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Campbell(1976), Diener(1984), 또는 Ryff(1989)의 이론 및 측정도구들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는 국내의 행복 연구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들에 크게 의존하여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김신영·백혜정, 2008). 최근에는 행복감이나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들도 활발해지고 있다(김신영 외, 2006; 조명호·김정오·권석만, 1994; 전신현, 1996).

행복의 측정을 통해 행복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은 GDP 측정을 행복으로 간주했던 과거와 달리 점차적으로 주관적 감정 자체로 서의 행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결정요인들은 그 이론적인 토대나 연구의 신뢰도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한계

가 있다. 이에 이론적인 토대로 행복의 결정요인들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2절. 욕구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욕구이론(Need theory)의 개요

인간의 욕구체계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인간행동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욕구이론(Need theory)은 인간의 동기유발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내용이론(content theories)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오석홍, 2009), 여기에서는 두 명칭을 연구의 편의상 ‘욕구이론’으로 사용하겠다.

동기는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려는 개념으로(오석홍, 2009),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Berelson & Steiner, 1964: 240; Campbell & Pritchard, 1976: 65; Siegel & Lane, 1987: 373; 김호섭 외, 2006: 127) ① 인간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것이 무엇이며, ② 그러한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③ 그 행동은 어떻게 유지되고 지속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동기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인간의 동기를 유발하는 내적 요인인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론(content theories)과 동기유발의 과정에 관심을 갖는 과정이론(process theories)이 그것이다.

이중 내용이론(이하 욕구이론)은 인간의 욕구체계에 관심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인간이 공통되는 욕구나 욕망을 가진 존재임을 가정한다. 여기서 욕구란 인간의 동기를 유발하는 무의식적이고 공통적인 필요나 갈망으로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결핍된 상태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욕구와 관련하여, Murrary(1938), Maslow(1954), Alderfer(1972) 등의

욕구이론가들은 인간이 욕구의 충족여부에 따라서 행복감과 불행함을 느낀다고 주장한다(김명소·한영석, 2006; 손지현, 2013).

2. 욕구이론의 흐름과 비교

욕구이론의 흐름을 주도한 개념들은 Maslow의 ‘욕구단계설’, Herzberg의 ‘2요인 이론’, McGregor의 ‘XY이론’, Alderfer의 ‘ERG이론’, McClelland의 ‘성취욕구이론’ 등이다(이임정·윤관호, 2006). 욕구에 관한 주요 동기부여이론의 요인들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욕구이론의 구성요인 비교

Maslow 욕구계층론	Alderfer ERG 이론	Herzberg 2요인 이론	McGregor XY이론	McClelland 성취동기이론
자기실현 욕구 존중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욕구 생리적 욕구	성장욕구 관계욕구 생존욕구	동기요인 위생요인	X이론 Y이론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

먼저, Maslow의 욕구계층론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유민봉, 2015). Maslow는 인간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욕구가 있다고 주장하며(Maslow, 1954), Murray(1938)의 40가지 욕구유형²⁾

2) Murray(1938)은 인간이 무수히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12개의 생리적인 욕구와 28개의 심리적인 욕구로 나열될 수 있다. 그는 TAT(주제통각검사)를 통해 개인이 어떠한 욕구를 가

을 임상적 관찰을 통해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 욕구(safety needs), 사회적 욕구(love and belonging needs), 존중 욕구(esteeem needs), 자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의 5개로 구분하였다. 욕구계층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단계별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욕구는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동된다. 즉, 하위의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상위단계의 욕구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욕구계층론에 의하면 인간은 욕구의 충족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며, 상위수준의 욕구충족이 보다 큰 행복감과 자아성장을 가져온다(Maslow, 1970). 하지만, 대다수의 인간이 이들 다섯 가지 욕구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구적으로 무엇인가를 원하는 동물(perpetually wanting animal)이다. 욕구의 결핍은 인간을 동기부여 한다.

욕구계층론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여 인간의 동기를 파악하게 하는 틀을 제시해 주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다섯 가지 욕구의 계층이 항상 고정적이지 않으며 계층의 우선순위가 개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하위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 된다 하더라도 그 욕구가 동기유발요인으로서 완전히 기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욕구로서 존재한다는 점,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습관과 같이 욕구 외에도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는 점, 그리고 Alderfer의 ERG이론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욕구가 하향적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이론적인 한계를 가진다.

Alderfer(1969, 1972)의 ERG이론은 Maslow의 욕구계층론을 포괄·발전 시킨 이론이다.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하고 계층에 따라 욕구가 유발된다고 규정한 점에서는 Maslow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지만(김호섭 외, 2006), 욕구계층론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실

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욕구들의 충족여부에 따라 주관적 안녕 혹은 행복을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urray 1938; 김명소·한영석, 2006).

증적인 겸증력이 떨어지는 욕구계층론을 현실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이론으로 욕구계층론과 구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Alderfer의 ERG이론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욕구계층론과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점은 Alderfer의 경우 Maslow의 다섯 가지 욕구계층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추상적인가를 기준으로 생존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그리고 성장욕구(growth needs)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Alderfer의 세 가지 욕구를 Maslow의 욕구계층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chneider & Alderfer, 1973). 첫째, 생존욕구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와 생계 등 물리적 안전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 중 물리적인 안전욕구에 해당한다. 둘째, 관계욕구는 사회 및 가족·이웃 등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 관계욕구는 Maslow의 안전욕구 중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 욕구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성장욕구는 Maslow의 자기실현욕구와 유사한 것으로 개인의 성장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표 2-4> Comparison of Maslow and ERG concepts (Schneider & Alderfer,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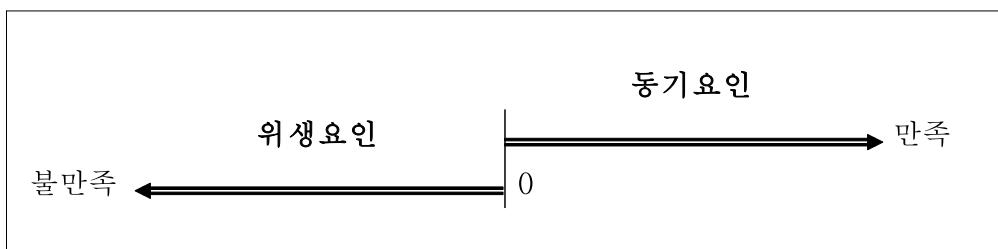
Maslow의 욕구 5계층		Alderfer의 ERG 욕구계층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안전욕구 (Safety)	물리적 안전 (material)	생존욕구 (Existence Needs)
	신분보장 (interpersonal)	
사회적 욕구 (Belongingness-social)		관계욕구 (Relatedness Needs)
존중 욕구 (Esteem)	타인의 인정 (interpersonal)	
	자기 존중 (self-confirmed)	
자기실현 욕구 (Self-actualization)		성장욕구 (Growth Needs)

Alderfer는 ERG이론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여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chneider & Alderfer, 1973). 이는 가장 우세한 하나의 욕구에 의해서만 인간의 행동이 유발된다는 Maslow의 이론과 대비된다. 또한, Alderfer는 욕구만족의 방향을 전진적·상향적 진행 뿐 아니라 후진적·하향적 퇴행으로도 설명하였는데, 세 단계의 욕구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상위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하위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다는 주장은 Alderfer의 ERG이론이 가진

이론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Schneider & Alderfer, 1973). 이는 또한, Maslow가 욕구 충족의 단계를 전진적·상향적 진행만으로 설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결과적으로 Alderfer의 ERG이론은 Maslow의 욕구 단계설이 가진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Maslow의 욕구계층론보다 실증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Herzberg(Herzberg, Mausner, & Snyderman, 1959; Herzberg, 1966)의 2요인 이론(Two-factor theory)은 직무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직무관련 요인들을 동기(motivator)요인과 위생(hygiene)요인의 두 가지로 이분화한 이론이다. 동기요인이란 인간에게 만족을 주고 직무수행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주로 직무와 조직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을 말한다. 한 편, 위생요인이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직무수행 시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주로 환경에 관한 요인들을 말한다. Herzberg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이 서로 상이한 차원에서 움직인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동기요인은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 요인이 되지만 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인은 되지 않으면 반대로 위생 요인이 모두 충족된 상태라 하더라고 위생요인의 만족이 동기부여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기요인에는 성취, 성취에 대한 인정, 직무 그 자체, 책임감, 성장 기회가 있으며 위생요인에는 봉급, 근무조건, 직위, 안정, 조직의 방침과 관행 등이 있다(이재경·최정길, 2012).

<그림 2-2> Herzberg의 2요인 이론



Herzberg의 2요인 이론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을 구별하여 제시하였다는데 조직 관리 측면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다양한 업종의 근무자에게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김호섭 외, 2006). 이 외에도, 한국의 조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타나고 있다(박천오, 1989; 김호정, 2000).

한편, McGregor(1960)는 Maslow의 욕구계층론을 바탕으로 X이론적 인간과 Y이론적 인간의 두 가지 인간관을 제시하고 인간관에 따른 인간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XY이론에 따르면, 전통적 관리체제를 정당화하는 인간관은 X이론(theory X)이고 인간의 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인간관으로 제시된 인간관을 Y이론(theory Y)이라고 한다. X이론은 Maslow의 욕구계층 중 하위욕구를 중요시 하는 것이고, Y이론은 비교적 상위 욕구를 중요시하는 것이다(McGregor, 1960). X이론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은 생리적 욕구나 안전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되며 조직의 관리는 통제와 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Y이론적인 인간에게는 자아만족이나 자기실현 욕구 등 상위의 욕구 충족에 의해 동기부여 되기 때문에 자율이 주어질 때 더 효과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다. McGregor는 위의 두 가지 인간관을 제시하면서 X이론적인 관리전략은 상위욕구의 충족을 원하는 현대인에게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오석홍, 2009).

마지막으로,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achievement motive theory)은 개인의 동기가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조성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론으로 조직 내 성취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갑두, 2009). 성취동기이론은 인간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욕구에 계층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Maslow의 욕구계층론과 공통점을 가지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욕구

의 계층이 있음을 부정한다는 데서 Maslow의 욕구계층론과 차이점을 가진다. McClelland(1962)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학습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욕구의 계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욕구의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정갑두, 2009). 한편,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욕구에 계층이 존재하며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Alderfer의 ERG이론과 유사하다.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는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를 강조하였는데 이를 욕구를 다른 욕구이론의 욕구들과 비교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호섭 외, 2006; 정갑두, 2009). 먼저, 성취욕구란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이다. 권력욕구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이다. 마지막으로, 친교의 욕구란 타인들의 사랑을 받고 타인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이다. 친교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 (Moorhead & Griffin, 1992). 다른 욕구이론과 비교해 볼 때, McClelland의 성취욕구는 Maslow의 욕구계층론 중 자기 존중이나 자아실현과 관련된 욕구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Alderfer의 ERG이론 중 성장욕구에 대응된다. 권력욕구의 경우는 지위나 타인에 관한 것으로 Maslow의 사회적 욕구 혹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정갑두, 2009), 이는 ERG이론에서 관계의 욕구로 유추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교의 욕구의 경우 욕구계층론 중 타인의 인정에 관한 욕구 혹은 ERG이론의 관계의 욕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Alderfer의 E.R.G. 이론 적용

지금까지 인간의 욕구에 관한 여러 동기부여이론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동기부여이론을 살펴본 결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Alderfer의 ERG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Herzberg의 2요인 이론이나 McGregor의 XY이론, 그리고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조직 내의 조직원들을 동기부여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기존 동기부여이론들은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욕구의 충족을 위해 인간이 동기부여 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인간 욕구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기이론이 본래 조직론의 측면에서 조직 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동기부여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본질적인 욕구를 설명하려는 목적 외에도 직무만족이나 조직 내 성취의 측면에서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경우, 조직원의 직무동기를 제고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욕구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 욕구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이론은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Maslow의 욕구계층론의 경우,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관한 이론으로 단순하면서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욕구이론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론의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가진 이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Mitchell(1982)는 욕구의 계층이 Maslow가 제시한 순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Maslow의 욕구계층이 실질적으로는 두세 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Mathes & Edwards, 1978).

이에 본 연구에서는 Alderfer(1969)의 ERG이론이 ①Maslow(1954) 욕구계층론의 한계를 보완한 이론이라는 점, ②실증연구에 보다 적합하다

는 점, ③다양한 선행연구에서 ERG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사용하고 있다
는 점을 근거로 Alderfer의 ERG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다만, ERG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 Maslow나 McClellend의 욕구에 대
한 관점을 차용하여 ERG이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것이다. Maslow와
Alderfer의 욕구이론이 비판받고 있는 점 중 하나는 이들이 주장한 공통
적인 욕구의 계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최정자, 2009).
Alderfer의 ERG이론의 경우 Maslow의 욕구계층론과 달리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발현될 수 있고 욕구의 방향이 후진적·하향적으로 퇴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욕구계층론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나 욕구의
계층이 존재하며 욕구 충족의 방향이 하위욕구에서 상위욕구로 나아간다
고 하는 점에서는 욕구계층론과 공통점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McClellend의 성취욕구이론은 욕구의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취욕구이론의 관점을 차용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계층과 그 충족의 방향성을 보다 유연한 관점에
서 보고자 한다. 즉, 욕구에 계층이 존재하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연구
분석에 있어, 상·하위 욕구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욕구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Maslow(1954)역시 그의 저서에서 다섯 가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
야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욕구가
100퍼센트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
급한 바 있다. 그는 욕구만족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모든 하
위 욕구가 완전히 충족될 수 없고, 각 욕구에 대한 만족이 동시에 있을
수 있되 다만 상위의 욕구로 올라갈수록 만족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Malsow, 1954). 이는 욕구의
각 계층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4. 욕구이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욕구이론에 대한 후속 연구들은 주로 욕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직 내의 근로자를 동기부여하고 조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욕구의 충족은 개인의 자아정체성이나 가치관 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무태도나 직무행동 또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Chen et al., 2012; Sirgy et al., 2001; Arnolds, C. A., & Boshoff, C., 2002). 국내의 경우, 욕구이론이 조직 및 동기부여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경영학이나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욕구분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욕구이론에 관한 국·내외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aslow의 욕구계층론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Maslow의 5가지 욕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거나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Wahba, M., & Bridwell, L., 1976; Mathes, E., & Edwards, L., 1978)와, 욕구계층론을 이론적인 근거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등(Seeley, 1992; Sheth, J., Newman, B. & Gross, B., 1991) 이를 이론적인 근거로 활용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대개 욕구이론을 이론적인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최정자, 2009; 이임정·윤관호, 2006; 이훈재, 2009). 이임정·윤관호(2006)는 Maslow의 욕구단계에 기인하여 변혁적 리더십 요인과 저차원의 욕구·고차원의 욕구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바 있다. 연구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자아실현의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재(2009)의 경우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Maslow의 5단계 욕구이론과 경찰의 지속적·개인적·조직적·사회적 차원의 사기수준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Alderfer의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은 Maslow의 그것

보다 많지 않은 편이다. 이중 Arnolds, C. A., & Boshoff, C. (2002)는 Alderfer의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욕구만족과 자존감(Self-seteem), 그리고 근로자의 성과(Employee job performance)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Chen et al.(2012)의 경우는 청소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ERG이론의 세 가지 욕구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모두 이직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Chang, W. L., & Yuan, S. T. (2008)의 경우 Markov Chain process와 ERG이론을 바탕으로 고객의 행동을 시스템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이매결 외 (2015)는 ERG이론을 기본 분석틀로 하여 한국과 중국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직무태도와 직무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한바 있다. 민연경(2013)은 노인복지욕구에 관한 연구에서 인간의 욕구와 휴먼서비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고령화 관련 정책을 욕구와 연관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지현(2013)의 경우, 연극종사자의 행복결정요인들을 Alderfer의 ERG이론에 근거해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McGregor의 XY이론의 경우, 이론에 대한 적용이나 정당성에 관한 연구들과 더불어(Hofsted, 1987; Kopelman, R, Prottas, D., & Falk, D., 2010), 후속 연구의 일환인 Z이론(Ouchi, 1981)와 함께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Herzberg의 2요인 이론은 기업이나 학교와 같은 일반적인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Cawsey, Reed, & Reddon, 1982; Nussel, Wiersma, & Rusche, 1988), 병원·호텔 등 다양한 관광·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직무만족과 불만족요인을 찾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Chitiris, 1988; Hancer & George, 2003). 국내에서는 최정자(2009)가 Maslow와 Herzberg의 2요인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의 욕구와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검정하였고, 이재정·최정길(2012)의 경우 서울시내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호텔산업에 있어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는데 있어 최근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론 중 하나다.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과 관련하여, 정갑두(2009)는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라 인간의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의 세 가지로 보고 이들 욕구와 자아존중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외에도 고환상·서재현(2012)은 변혁적 리더십, 조직후원인식 및 성취욕구가 셀프리더십을 통해 조직몰입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때 성취욕구와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가설에서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을 이론적인 근거로 하였다.

제 3절. 욕구이론과 행복의 관계

1. 욕구이론과 행복의 관계

욕구와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욕구에 대한 만족은 행복감과 연결된다(Maslow, 1954; Shin,D. C, & Johnson, D. M., 1978). 이들 연구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행복해지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때 인간은 불행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Maslow(1954)의 경우 그의 저서에서 욕구의 만족을 행복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욕구의 만족은 행복감과 연결되며, 욕구에 대한 결핍이 나타날 때 인간은 불행함을 느낀다. 더불어 그는 저서에서 행복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는 인간이 상위의 욕구가 충족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인간은 욕구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완전히 행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Maslow, 1954). Maslow 외에도 욕구이론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들이 행복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욕구의 만족이 행복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욕구의 충족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결정된다면 각 욕구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손지현, 2013). 본 연구에서는 욕구와 행복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면 행복감이 증가할 것이라 가정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만, 욕구의 분류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Alderfer(1969)의 E.R.G.이론을 사용하여 생존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의 세 가지로 욕구를 유형화하였다. 각각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먼저, 생존의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물리적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욕구로 경제력, 주거, 건강 등이 생존의 욕구에 해당된다. Maslow(1954)

는 다른 모든 욕구들 중에서 생리적 욕구를 가장 강력한 욕구로 보았으며, 한 예로 만성적이고 극단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은 음식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생존의 욕구와 행복의 관계는 관념적으로도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생존의 욕구 중 하나인 경제력은 행복 측정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때부터 오늘날까지 행복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남주하·김상봉, 2012; 최영출·이지혜, 2013). 이 외에도 최근 안전욕구와 삶의 만족 혹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박영만·김은정, 2011; 이지은·강민성·이승종, 2014).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생존의 욕구에 대한 만족 없이는 인간이 행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손지현, 2013), 논문의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생존욕구에 대한 만족은 행복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두 번째, 관계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욕구로 이때 타인은 사회 및 가족, 이웃을 포함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타인과의 좋은 대인관계가 행복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민경, 2012; 구재선·김의철, 2006). Deci & Ryan(1990)은 관계(Relatedness)를 인간의 성장(growth), 안정(integrity), 혹은 안녕(well-being)에 필요한 요소로 언급하였으며 Reis, Harry T., et al.(2000)은 관계욕구의 만족을 가져오는 사회활동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안녕(Daily Well-be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나 친구의 지지가 행복감을 증가시킨다는 연구(Cohen, 1988; Hotard et al., 1989; 김민경, 2012; 허승연, 2009)와 부모의 지지나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가 주관적 안녕이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청송, 2009; 김민경, 2012; 서하진·김정옥, 2009)등이 있다.

친구 또는 가족 간의 친밀함이나 대인관계의 원활함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이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곧 인간이 관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의 욕구에 대한 만족이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감의 증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2.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은 행복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욕구는 개인의 성장이나 성취와 관련된 고차원적인 욕구를 말한다. 다양한 욕구이론(Alderfer, 1972; Maslow, 1954)에서 나타나듯이 자존감은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동기이다. Campbell(1981)은 자존감(self-esteem)이 주관적 안녕의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Branden(1992)는 개인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되면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손지현, 2013). Ryff, C. D. (1989)를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성장(personal growth)과 같은 요인을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혹은 행복(happiness)의 요인으로 보고 상관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행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정은의·노안영, 2007; 권세원·이애현·송인한, 2012; 류시영·강방훈, 2012).

한편,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 간 괴리가 있는 경우 부정정서 혹은 불행을 경험한다(Higgins, 1987). 이에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불일치와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의 관계를 규명한 바 있다(Morretti & Higgins, 1990; 김지윤·이동귀, 2012). 자기불일치이론에서의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개인의 성장이나 성취와 관련된 모습으로 간주

한다면 자기불일치를 성장욕구의 좌절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존감이나 자기불일치 이론과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성장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자아실현에 대한 만족감이 인간의 행복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세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은 행복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2.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행복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행복을 정의내리기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로 삼아 학문적 논의 차원에서 행복을 정의하거나 행복 측정 방법을 찾는데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욕구의 만족이 행복감과 연결된다는 욕구이론의 기본 전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간의 기본 욕구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은 매우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욕구이론의 관점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행복연구의 범주를 확장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연구의 행정학적 논의이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 사회학적·심리학적 학문을 기초로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행복연구를 행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행복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연결함으로써 향후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범위의 확장 측면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행복에 관한 논의는 주로 행복을 정의하고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론의 측면에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 욕구이론 역시 조직 내 구성원의 동기

부여나 소비자 등 개인의 욕구 파악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욕구이론의 관점에서 행복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셋째,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 확보 측면이다. 지금까지 욕구이론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절대적인 수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행복요소를 구분하는데 집중하거나, 특정 직업군이나 세대, 지방자치단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등 한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직업군 혹은 세대가 아닌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수준의 행복도를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또한, 표본의 수도 전국 10,450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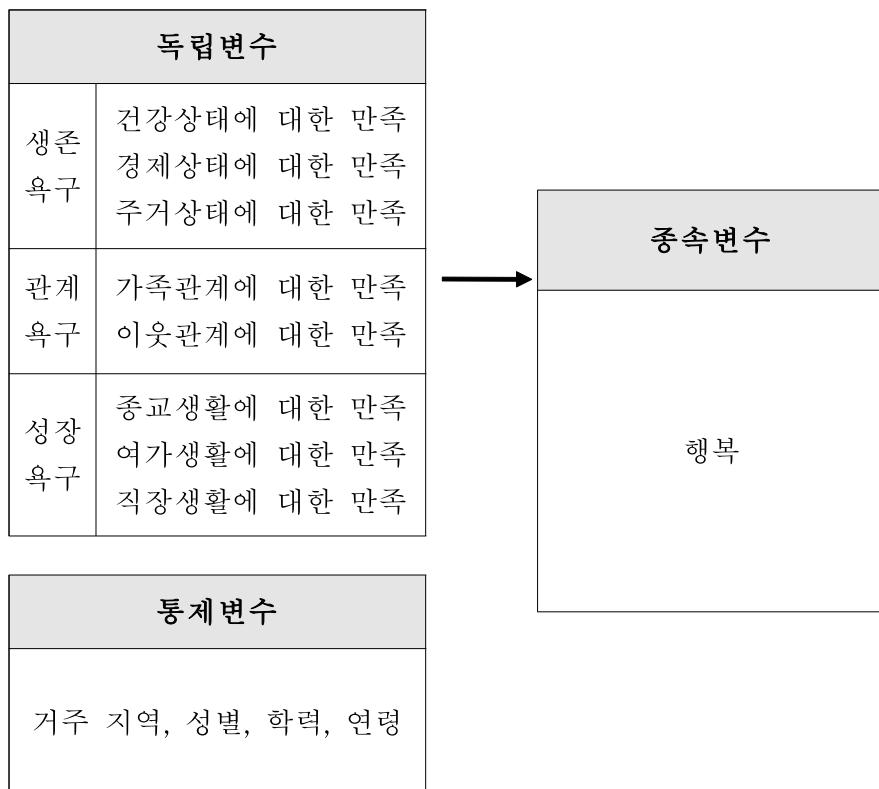
제 3장 연구설계

제 1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욕구에 대한 만족감이 개인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①건강상태, ②가족관계, ③이웃관계, ④경제상태, ⑤주거상태, ⑥종교생활, ⑦여가생활, ⑧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Alderfer의 ERG 이론에 따라 구분하고, 어떠한 만족요인들이 행복감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연구의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는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웃관계, 경제상태, 주거상태, 종교생활, 여가생활, 직장생활의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세 가지 기본 욕구의 만족도는 각 욕구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영역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종속변수는 행복인데 이는 행복여부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로 선정하였다. 이 요인들에는 응답자의 거주지역, 성별, 학력, 연령 등을 포함한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제 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행복(Happiness)’이다. 종속변수 측정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의 “귀하는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단일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①매우행복하다, ②행복한 편이다, ③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행복하지 않다, ⑤보통이다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2. 독립변수

연구의 독립변수는 생존욕구에 대한 만족,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 그리고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 가지 욕구에 대한 만족을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웃관계, 경제상태, 주거상태, 종교생활, 여가생활, 직장생활 등 8개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 역시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의 생활 관련 만족도 문항을 통해 측정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귀하의 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통해 각각의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① 매우만족, ②만족하는 편, ③만족하지 않는 편, ④전혀 만족하지 않음, ⑤ 보통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의 선행연구를 분석틀로 삼아 여덟 가지 생활관련 문항들은 Alderfer의 ERG이론에 근거하여 E(Existence), R(Relatedness), G(Growth)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시도하였다.

김명소 외(2003)는 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인에 적합한 행복구성요인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FGI와 설문지를 통해 행복한 사람의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고 설정된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요소는 총 16개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경제력, ②사회, 정치, 문화, 환경, ③외모, ④건강, ⑤자녀의 바른 성장, ⑥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⑦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⑧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⑨사회적 지위 및 인정, ⑩자기 수용감, ⑪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⑫자립성, ⑬여가, ⑭긍정적 인생관, ⑮사회봉사, ⑯종교.

이와 관련하여 김명소·한영석(2006)은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을 개발하기 위해 위의 16개 항목을 행복지수로 산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 항목을 Alderfer의 ERG이론 관련 항목에 따라 재구성하고 그 적절성을 검증한 바 있다. 현재 다양한 후속연구(김신영·백혜진, 2008; 손지현, 2013)에서 이 분석틀을 이론적인 근거 및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ERG이론의 범위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3-1> 한국인의 행복요소와 생존·관계·성장욕구이론에 따른
재분류(김명소·한영석, 2006)

욕구	한국인의 행복요소	정의
생존	경제력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정도
	사회, 정치, 문화, 환경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현 사회의 제반 환경적 요인(사회, 정치, 문화, 교육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

	외모	현재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건강	현재 알고 있는 질병이 없고 건강에 자신 있어하는 정도
관계	자녀의 바른 성장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으면 자녀 간에 화목한 정도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과 친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정도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배우자(이성)와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배우자(이성)로부터 배려,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위에 친밀감을 느끼는 타인이 있는 정도
	사회적 지위 및 인정	타인으로부터 현재 자신의 사회적 지위, 학력 등에 대해 인정받고 있는 정도
	자기 수용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성취감, 수용감 정도
성장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와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도
	자립성	자신과 관련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정도

	여가	일상을 벗어난 문화생활 및 레저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정도
	긍정적 인생관	삶을 살아가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사회봉사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돋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종교	현재 만족스러운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정도

본 연구에서는 김명소·한영석(2006)의 분류방법에 착안하여 여덟 가지 생활에 관한 만족도를 세 가지 기본욕구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건강상태와 ⑤주거상태는 생존의 욕구(E)에 해당하며 ②가족관계 및 ③이웃관계는 관계의 욕구(R)에 해당된다. ⑥종교생활, ⑦여가생활, ⑧직장생활의 경우는 성장의 욕구(G)로 분류할 수 있다. 주거상태의 경우 위의 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자신의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제반 환경 요인’에 주거상태가 포함된다고 간주하여 이를 가장 적합한 욕구 영역인 생존의 욕구로 포함하였다. 직장생활 역시 위의 표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성장의 욕구영역 중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등 의 하위 영역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성장의 욕구로 포함하였다.

세 가지 기본 욕구의 만족도는 각 욕구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영역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생존의 욕구의 경우 ‘건강상태’, ‘경제상태’, ‘주거상태’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한 후 3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관계의 욕구의 경우 ‘가족관계’와 ‘이웃관계’의 만족도 점수를 합한 후 2로 나누었다.

성장의 욕구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생활’, ‘여가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응답점수 합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표 3-2> 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른 욕구유형 분류

생존의 욕구(E)	관계의 욕구(R)	성장의 욕구(G)
①건강상태 ④경제상태 ⑤주거상태	②가족관계 ③이웃관계	⑥종교생활 ⑦여가생활 ⑧직장생활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로 한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 성별, 학력, 연령 등이 그것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보는 ‘삶의 질과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의 기본 설문항목들을 사용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주지역의 경우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8도 및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광역시에 거주하는지와 일반시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의 경우 만 연령 기준으로 질문하였다.

제 4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1. 기초통계량 분석

본 연구는 군 지역 제외 제주도와 전국 8도 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45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가설검정에 앞서 전체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 표본의 수는 10,450명이지만 각 변수별로 결측값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 4-1> 인구사회학적 통계

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체 통계량		10,450	100.0	100.0
성별	남성	5,125	49.0	49.0
	여성	5,325	51.0	51.0
	결측값	0	0	0
지역	특/광역시	3,050	29.2	29.2
	일반시	7,400	70.8	70.8
	결측값	0	0	0
연령	19~29세	1,628	15.6	15.6
	30대	1,884	18.0	18.0

	40대	2,344	22.4	22.4
	50대	2,148	20.6	20.6
	60세 이상	2,446	23.4	23.4
	결측값	0	0	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151	20.6	20.7
	고졸	3,961	37.9	38.2
	대학 이상	4,264	40.8	41.1
	결측값	74	.7	0

표본들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살펴보면 성별, 지역, 연령, 교육수준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성별의 경우 조사 대상자 총 10,450명 중 49%인 5,125명이 남성, 51%인 5,325명이 여성으로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가 1,628명(15.65%), 30대 1,884명(18.0%), 40대 2,344명(22.4%), 50대가 2,148명(20.6%)로 거의 유사하였고 60세 이상은 2,446명(23.4%)으로 적은 차이이지만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지역은 특별시 혹은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9.2%(3,050명)로 일반시인 70.8%(7,400명)보다 적었는데 이는 표본추출시 전국의 지역별 인구를 고려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2,151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고, 고졸은 3,961명으로 전체의 38.2%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이상은 총 4,264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결측값은 교육수준에서만 74개로 높게 나타났다.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살펴본 결과 표본은 인구사회학적으로 고르게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본이 전체 모집단인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를 잘 대표할 것임을 의미한다.

2.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분석

1)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독립변수의 경우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는 다시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 총 8개의 하위 문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항목은 생활영역의 만족 정도에 따라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이에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측정은 각 욕구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영역의 만족도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생존욕구에 대한 만족’의 경우 응답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합한 후 항목 수인 3으로 나눈 값을 개인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에 해당하는 값을 산출하였다. 이 외에 세부적인 8개 항목별 기초통계량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변수		표본수	결측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생 존 욕 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10,444	6	2.41	1.035	1	5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10,430	20	2.88	1.063	1	5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	10,432	18	2.43	.963	1	5
관 계 욕 구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10,419	31	1.89	.760	1	5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10,198	252	2.28	.927	1	5
성 장 욕 구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9,977	473	2.12	.832	1	5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10,302	148	2.63	1.070	1	5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10,207	243	2.59	1.055	1	5

먼저, 생존욕구의 영역인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기초통계량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총 10,444명이 응답하였고 평균 2.41로 주거상태의 만족도의 평균인 2.4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거상태의 만족도는 총 10,432명이 응답하였다. 총 10,430명이 유효하게 응답한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는 결측값이 20으로 가장 높고, 만족도의 평균도 2.88로 가장 높았다.

관계욕구의 영역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총 10,419명이 응답하였고 평균값은 1.89였다. 반면에,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결측값이 252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평균값은 2.28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성장욕구의 영역인 종교생활의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교생활의 만족도에서는 결측치가 473으로 모든 독립변수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은 2.12이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생활의 만족도 역시 결측치가 각각 148, 243으로 다른 욕구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 만족도의 평균은 여가생활의 만족도의 경우 2.63, 직장생활의 만족도의 경우 2.59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만족도 평균은 최소 1.89(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 최대 2.88(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로 1점 후반에서 2점 후반대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종속변수인 행복도의 기초통계량 분석은 다음과 같다. 행복도의 경우 결측치 36을 제외한 10,414명이 응답하였다. 행복도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최솟값은 1, 최댓값은 5이다. 행복도의 평균은 2.35로 보통에 가깝다.

<표 4-3>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변수	표본수	결측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행복도	10,414	36	2.35	.969	1	5

3)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지역,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해당한다. 교육수준을 제외한 성별, 지역, 연령의 경우 결측치가 없었으며, 이들의 평균은 각각 성별 1.71, 지역 1.51, 연령 3.18, 교육수준 2.20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척도의 기준이 명목척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균값이나 최댓값 최솟값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 변수에 비해 크지 않다. 다만, 성별의 경우 평균이 1.71로 남성(1)보다 여성(2)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지역 역시 평균 1.51로 일반시(2)가 특별·광역시(1)보다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령의 경우 평균값이 3 이상으로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많다는 것 등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4>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표본수	결측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성별	10,450	0	1.71	.455	1	2
지역	10,450	0	1.51	.500	1	2
연령	10,450	0	3.18	1.383	1	5
교육수준	10,376	74	2.20	.759	1	3

제 2절.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상관계수를 통해 통제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이 $p=0.01$ 수준(양쪽을 기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나타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설명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8이상이면 이는 두 변수간 공선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본 연구의 경우, 상호 간 상관계수가 0.8이상인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다중공선성에 관한 검증은 다음 절(제 3절. 회귀분석)에서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5>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상관계수				
		생존욕구에 대한 만족도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도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도
생존욕구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 확률 (양쪽)			
	N	10408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403**	1	
	유의 확률 (양쪽)	.000		
	N	10135	10174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524**	.375**	1
	유의 확률 (양쪽)	.000	.000	
	N	9675	9494	9709

**. p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4-6>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 건강상태 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								
2. 가족관계 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337**	1							
	유의확률	.000								
3. 이웃관계 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141**	.316**	1						
	유의확률	.000	.000							
4. 경제상태 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312**	.316**	.206**	1					
	유의확률	.000	.000	.000						
5. 주거상태 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262**	.306**	.213**	.497**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6. 종교생활 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136**	.221**	.217**	.199**	.234**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7. 여가생활 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247**	.242**	.194**	.368**	.328**	.283**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8. 직장생활 에 대한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280**	.292**	.207**	.439**	.351**	.241**	.443**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 행복도	Pearson 상관계수	.330**	.385**	.246**	.413**	.332**	.223**	.360**	.448**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p=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제 3절. 회귀분석

1. 다중공선성 검증

독립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변수간의 선형관계가 나타날 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한다고 한다. 다중공선성이란 모형에 포함되는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 회귀모형에서 각 변수의 개별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때문에 변수 간 상관관계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회귀분석에 있어 문제가 된다. 통상적으로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VIF)이 1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모형에서 해당 요인을 제외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공선성 검증을 통해 독립변인들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공차한계는 0.6750에서 0.803 사이로 모두 0.1이상이었고, VIF 또한 1.245에서 1.481사이로 10보다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다중공선성 검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 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	VIF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104	.009	.111	.000	.815	1.227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215	.012	.169	.000	.756	1.322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065	.009	.062	.000	.863	1.159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133	.010	.147	.000	.640	1.563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	.046	.010	.046	.000	.690	1.448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038	.010	.033	.000	.859	1.164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090	.009	.100	.000	.723	1.384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204	.009	.224	.000	.682	1.467
생존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	.331	.013	.264	.000	.675	1.481
관계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	.239	.013	.170	.000	.803	1.245
성장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	.352	.013	.270	.000	.691	1.447

2. 다중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생존·관계·성장의 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각각 생존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의 세 가지이며 이들은 8개 각 생활영역에서의 만족감으로 나누어진다. 종속변수는 행복감이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 분석결과 모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모형요약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df1	df2	유의화를 F 변화량	
.566 ^a	.321	.320	.791	.321	632.203	7	9370	.000***	1.999
***. p= 0.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모형요약을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이 632.203으로 ($p<0.001$) 모형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R Square)값은 0.321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모형이 32.1%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Durbin-Watson의 경우 잔차(residual)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Durbin-Watson 값의 경우 0에서 4까지의 값을 갖게 되며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에 가까울수록 잔차의 독립성이 검증되는 것이다. 본 모형의 경우 Durbin-Watson 값이 1.999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9>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0차	편상 관	부분 상관	공 차	VIF
(상수)	.399	.072		5.547	.000					
생존욕구에 대한 만족도	.311	.014	.248	22.796	.000***	.473	.229	.194	.613	1.631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도	.241	.013	.171	18.019	.000***	.375	.183	.153	.801	1.248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도	.353	.013	.271	26.397	.000***	.471	.263	.225	.689	1.451
지역	-.023	.018	-.011	-1.242	.214	-.020	-.013	-.011	.989	1.011
성별	-.103	.017	-.054	-6.226	.000	-.047	-.064	-.053	.980	1.020
연령	.020	.007	.028	2.921	.003	.132	.030	.025	.770	1.299
교육수준	-.044	.013	-.034	-3.508	.000	-.150	-.036	-.030	.749	1.334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p<0.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연구의 모든 가설(가설1, 가설2, 가설3)이 채택되었다.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들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욕구들은 동시에 작용하여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Schneider & Alderfer(1973)의 주장이 일면 타당한 것임을 의미한다.

비표준화 계수(Unstandardized Coefficients) B는 편회귀 계수 추정치로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한 상태에서 해당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곧 각 독립변수들인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가 1씩 상승할 때 종속변수인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각 독립변수에 대한 만족도가 1씩 상승할 때, 행복감은 최소 0.241에서 최대 0.353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존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1 상승할 때 행복감 증가는 0.311 상승하였고,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1 상승할 때 행복감은 0.241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가지 욕구계층에 비해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도는 1 상승할 때 증가하는 행복의 크기가 0.353만큼 증가하여 가장 높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에 대한 B값은 통상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다른 통제변수들의 비표준화 계수 값과 비교하면 세 가지 기본욕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만족이 행복에 매우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인 베타값의 경우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으로 그 값은 0.271 이었다. 생존욕구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의 베타값은 0.248이었고,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베타값은 0.171로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대한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국

민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장 욕구에 대한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의 욕구충족이 보다 큰 행복감과 자아성장을 가져온다는 Maslow(1970)의 주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장 욕구에 대한 만족이 국민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데에도 의미가 크다. Maslow(1954)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하위욕구가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상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좋은 사회를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로 정의한 바 있다. 미루어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개 생계나 안전의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상위의 욕구인 성장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개별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나 치안, 복지를 해결해주는 국가로 기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의 욕구의 경우 생존 욕구보다 상위수준의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작았다. 이는,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우선 순위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도로 성장된 사회에서 사회 전체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고 ‘우리’라는 개념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 4-12>의 관계의 욕구 항목을 보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 다음으로 매우 크지만,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관계에 대한 개인 인식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지역,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지역을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의 세 가지 변수들이 행복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여성(0)이 남성(1)에 비해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행복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상승할수록 행복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 통제변수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나 표준화계수를 고려할 때, 종속변수인 행복에 관하여 개별 통제변수들이 갖는 영향력은 세 가지 독립변수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행복을 측정하고자 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이, 학력, 인종,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통제변수들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차이를 고려한다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통계학적 요소이기보다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로 보는 것이 더 설명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각 항목별 상관관계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후술하겠다.

<표 4-10> 가설검정

가설	채택 여부
생존욕구에 대한 만족은 행복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은 행복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은 행복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hierachi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derfer의 ERG이론에 따라 분류된 세 가지 욕구단계가 종속변수인 행복에 미치는 위계적 영향 및 욕구단계별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1>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182 ^a	.033	.033	.944	.033	79.838	4	9373	.000
2	.482 ^b	.232	.232	.841	.199	810.448	3	9370	.000
3	.529 ^c	.280	.279	.815	.047	307.986	2	9368	.000
4	.582 ^d	.338	.338	.781	.059	277.788	3	9365	.000

총 4개의 모형 중 모형1은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모형2는 통제변수에 생존의 욕구(건강상태도, 경제상태, 주거상태)에 관한 만족도 항목들을 추가하였다. 모형3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에 관계의 욕구(가족관계,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4에서는 성장의 욕구(종교생활, 여가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든 관련 항목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2> 위계적 회귀분석 요약

	독립변수 (상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SE	비타	t	SE	비타	t	SE	비타	t	SE	비타	t
동 체 변 수	지역유형	.022	-.034	-3.333	.019	-.018	-2.001	.019	-.014	-1.616	.018	-.014	-1.678
	성별	.020	-.067	-6.490	.018	-.065	-7.028	.017	-.059	-6.657	.016	-.054	-6.308
	연령	.008	.079	6.933	.007	-.001	-.085	.007	.000	-.042	.007	.008	.771
	교육수준	.015	-.126	-10.888	.013	-.028	-2.676	.013	-.029	-2.879	.012	-.026	-2.621
생 존 주 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009	.206	20.473	.009	.150	14.903	.009	.110	11.319
정 체 상 태 에 대 한 만 족 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010	.272	25.184	.010	.230	21.742	.010	.141	13.265
관 계 와 기 족 관 계 에 대 한 만 족 도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				.011	.138	13.085	.010	.095	9.130	.010	.044	4.354
관 계 와 기 족 관 계 에 대 한 만 족 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013	.198	19.719	.012	.167	17.186
관 계 와 기 족 관 계 에 대 한 만 족 도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010	.091	9.594	.010	.064	6.929
성 장 과 기 족 관 계 에 대 한 만 족 도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010	.031	3.394
성 장 과 기 족 관 계 에 대 한 만 족 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009	.105	10.592
성 장 과 기 족 관 계 에 대 한 만 족 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009	.220	21.630
통계량		R ² = .033		R ² = .232		R ² = .280		R ² = .338					
		수정된R ² = .033		수정된R ² = .232		수정된R ² = .279		수정된R ² = .338					
		F= 79.838		F= 810.448		F= 307.986		F= 277.788					

독립변수: 모델1=통제 변수, 모델2=통제 변수+생존의 육구, 모델3=통제 변수+생존의 육구+관계의 육구, 모델4=통제 변수+생존의 육구+관계의 육구+성장의 육구

분석결과, 네 개의 모형 모두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욕구영역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들이 추가될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점차 커지는 것이 눈에 띈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만을 보았을 때의 설명력은 3.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가장 하위의 욕구인 생존의 욕구가 추가된 모델2의 경우 설명력은 23.2%(19.9% 상승)로 그 설명력이 현저히 상승하였다. 관계의 욕구가 추가된 모델3의 경우 설명력은 4.7%상승하여 총 28%의 설명력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성장의 욕구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경우 5.9%의 설명력이 상승하여 총 33.8%의 설명력을 보였다.

R^2 (R Square)값의 변화를 통해 세 가지 욕구단계 중 ‘생존의 욕구’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047과 0.059로 유사하나 ‘성장의 욕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표 4-12> 위계적 회귀분석 요약을 살펴보면, 욕구단계 별 위계적 영향 뿐 아니라 독립변수의 측정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문항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개별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8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만족이 종속변수인 행복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문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8개 항목 중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220)’이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167)’,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141)’,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110)’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문항은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도(.031)’,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044)’,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064)’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들 8개 항목의 영향력을 각 항목의 만족도 평균과 비교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4-13> 항목별 평균과 베타값 비교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주거 상태	가족 관계	이웃 관계	종교 생활	여가 생활	직장 생활
평균	2.41(5)	2.88(1)	2.43(4)	1.89(8)	2.28(6)	2.12(7)	2.63(2)	2.59(3)
베타값	.110(3)	.141(3)	.044(6)	.167(2)	.064(5)	.031(7)	.105(4)	.220(1)

개별 생활영역의 만족 정도와 각 영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복에 영향을 크게 미치나 현재 만족수준이 낮은 항목의 경우 향후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와 같은 경우는 베타값이 0.162로 8개 항목 중 두 번째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만족도의 평균은 1.89로 가장 낮다. 이는 가족 관계에 대한 국민의 만족수준이 향상될 경우 국민의 행복수준 또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만족도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항 또한 정책적인 고려가 가능하다. 예컨대 여가생활 같은 경우 만족도의 평균은 2.63으로 두 번째로 높지만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8개 항목 중 중간 수준이다. 이는 개별 국민이 여가생활에 관한 욕구에 있어서 높은 만족감을 느끼지만, 이를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McClelland(1962)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될 수 있으며 이에 욕구의 중요도(계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욕구의 만족도는 높지만 행복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하위영역의 경우 정책 홍보 등 사회·문화적 교육을 통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 중 행복에 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찾아 정책을 형성하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편으로, 개별 국민이 만족하는 생활영역의 욕구들이 행복에 더 많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도록 하는 노력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만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인의 기본 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오늘날, 행복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커지고 국민의 행복수준을 높이려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학문적 논의 차원에서 행복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에만 집중해온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행복연구의 범주를 확장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욕구의 만족이 행복감과 연결된다는 욕구이론의 기본 전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간의 기본 욕구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행복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연결함으로써 향후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Alderfer의 E.R.G.이론을 중심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욕구영역(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이 모두 행복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욕구에 대한 만족이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 상위 욕구의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타인과의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홀히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행복간의 관계만을 보았을 때 모형의 설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하위의 욕

구인 생존의 욕구가 추가된 경우 그 설명력이 현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9% 상승). 다른 두 가지의 욕구가 추가 되었을 때도 설명력은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는 결국 개인이 성장의 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하위 욕구인 생존욕구에 대한 만족만으로도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욕구이론을 통해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갖는다. 먼저, 국민의 기본적 욕구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 규명함으로써 향후 국민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날 행복을 국정과제를 삼을 만큼 행복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뜨겁지만,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국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논의의 이론적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인간의 어떠한 욕구가 국민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국민을 향한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행복연구의 행정학적 고찰을 통해 정부가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국가적 차원에서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이러한 관심을 이끌어간 학문적 논의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행정학적 논의를 통해 행복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 고찰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다. 기준 설문지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표본의 수는 확보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과 세부 측정 항목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다. 예컨대 독립변수에 관한 세부 문항들을 Alderfer의 E.R.G.이론에 따라

분류하는데 있어 선행연구의 분류기준을 따랐지만 일부 항목에서 이를 명확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국가가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 이론적인 논의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형성에 있어 국가가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실제로, 행복에 관한 국가적 차원에 논의에 있어 거대정부(big government)나 과보호국가(nanny state)에 대한 우려가 항상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출현이나 개인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행복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집단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공공정책의 입장에서 행복은 가치재(merit goods)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행복에 관한 행정학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의 행복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정부가 더 좋은 국가로 기능하고 국민행복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행복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향후 행복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명철·최상옥. (2012). 삶의 질 (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 고환상·서재현. (2012). 변혁적 리더십, 조직후원인식, 성취욕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5(1): 435–459.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구재선. (2009).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65–179.
- 구재선·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권세원·이애현·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명소·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민경. (2012). 남녀대학생의 강점, 가족건강성과 행복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47–68.
- 김병섭·이수영·안선민. (2015). 제 9 분과< 국민행복과 복지정책>: 발표;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단일호): 775–793.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

- 발달 지표조사 I: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161.
- 김신영·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윤태. (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2009년 한국사회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 학술심포지엄」, 75-90.
- 김지윤·이동귀. (2012). 여고생의 가족관계 및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자기 불일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 역할. 「상담학 연구」, 13(3): 1443-1460.
- 김진주·구자영·서은국. (2006).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포스터발표; 신체적 매력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06(단일호): 412-413.
- 김청송. (2009). 경험논문: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 김호섭, 김판석, 류홍립, 박통희, 이창원, & 강제상. (2006). 「조직행태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 김호정. (2000). 공무원과 회사원의 동기부여 요인 비교. 「한국행정논집」, 12(2): 265-285.
- 남주하·김상봉. (2012). 한국의 경제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18(2): 1-28.
- 류시영·강방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잼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 문승연·최인숙. (2011). 사회복지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5(1): 305-327.
- 민연경. (2013). 고령층의 복지욕구와 휴먼서비스 관점에서의 정책과제: 소득과 건강상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1): 825-843.

- 박민자. (2006). 행복가족의 요소와 의미. 「가족과 문화」, 18(4): 183-205.
- 박종민·김서용(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 기준. 「아세아 연구」, 45(2): 141-164.
- 박영만·김은정. (2011). CCTV 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욕구충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437-447.
- 박천오. (1989). Herzberg 연구방법을 통해서 본 한국 공무원의 직무동기. 「한국행정학보」, 23(1): 343-367.
- 서하진·김정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송건섭. (2011).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방안. 「한국행정논집」, 23(2): 853-877.
- 손지현. (2013). 연극 종사자의 행복 수준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6(2): 3-24.
- 오석홍. (2009).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우창빈. (2013). 일반논문: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우창빈. (2014).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technical)거버넌스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가?. 「행정논총」, 52(1): 219-246.
- 유민봉. (2015). 「한국행정학」, 박영사
- 이매결·이금희·권순식. (2015). ERG 요인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한,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경우. 「인적자원관리연구」, 22(1): 73-100.
- 이임정·윤관호. (2006). 저차원의 욕구·고차원의 욕구와 변혁적 리더십 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9: 63-83.
- 이재경·최정길. (2012). 호텔산업에서 허즈버그 (F. Herzberg) 의 동기·위생이론 적용에 관한 검증. 「대한경영학회지」, 25(4): 2091-2111.

- 이지은·강민성·이승종.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이지혜. (2010).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27(3): 143-164.
- 이훈구. (1997). 「행복의 심리학: 주관적 안녕」. 서울: 법문사.
- 이훈재. (2009). 욕구이론의 요인과 경찰사기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4(2): 99-124.
- 이희연·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문우사.
- 전신현. (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 63-82.
- 정갑두. (2009). 개인 욕구와 자아존중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직학회보」, 6(1): 163-194.
- 정은의·노안영. (2007).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 관계: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59-82.
- 정정길. (2011).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 조명호·김정오·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최정자. (2009). 문화관광해설사의 욕구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4(1): 243-264.
- 추홍규. (2005). 개인의 행복지수 수준과 결정요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출·이지혜. (2013). 지역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21-37.
-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형기(1998). 「관의 논리 민의 논리: 정부개혁의 이론과 비전 제시」. 비봉출판사.

2. 외국문헌

- Alderfer, C. P. (1969). An empirical test of a new theory of human nee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2): 142–175.
- Alderfer, C. P. (1977). A critique of Salancik and Pfeffer's examination of need-satisfaction theor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58–669.
- Alderfer, C. P., & Guzzo, R. A. (1979). Life experiences and adults' enduring strength of desires in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47–361.
- Arnolds, C. A., & Boshoff, C. (2002). Compensation, esteem valence and job performance: an empirical assessment of Alderfer's ERG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3(4): 697–719.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New York, NY, US: Routledge
- Berelson, B., & Steiner, G. A. (1964). Human behavior: An inventory of scientific findings.
- Branden, N. (1992). *Power of Self Esteem*. Deerfield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s, Inc.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J. & Pritchard, R. (1976). *Motivation theory in industrial*

-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awsey, T. F., Reed, P. L., & Reddon, J. R. (1982). Human needs and job satisfac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Human Relations*, 35(9): 703–715.
- Cereseto, S., & Waitzkin, H. (1986). Capitalism, socialism, and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6(4), 643–658.
- Chang, W. L., & Yuan, S. T. (2008). A synthesized model of Markov chain and ERG theory for behavior forecast in collaborative prototyping.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ory and Application (JITTA)*, 9(2): 5.
- Chen, Y. Y., Park, J., & Park, A. (2012). Existence, relatedness, or growth? Examining turnover intention of public child welfare caseworkers from a human needs approac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10): 2088–2093.
- Chitiris, L. (1988). Herzberg's proposals and their applicability to the hotel industry.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12(1): 67–79.
- Cohen, S. (1988). Psychosocial model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etiology of physical disease. *Health psychology*, 7(3): 269.
- Deci, E. L., & Ryan, R. M. (1990).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 237).
- Diener.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ncan, G. (2013). Happiness, Sadness and Government. *Health, Culture and Society*, 5(1): 51–66.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89–125.
- Graham, C. (2012). *The pursuit of happiness: An economy of well-being*.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Gray, R. S., Rukumnuaykit, P., Kittisuksatit, S., & Thongthai, V. (2008). Inner happiness among Thai elderl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3(3): 211–224.
- Hancer, M., & George, R. T. (2003). Job satisfaction of restaurant employe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using the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27(1): 85–100.
- Herzberg (1966). *Work and the nature of man*.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Herzberg, F., Mausner, B., & Snyderman, B. (1959). *The Motivation to work*.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
- Hofstede, G. (1987). The applicability of McGregor's theories in South East Asia.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6(3): 9–18.
- Hotard, S. R., McFatter, R. M., McWhirter, R. M., & Stegall, M. E. (1989). Interactive effects of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 social relationships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2): 321.
- Kopelman, R. E., Prottas, D. J., & Falk, D. W. (2010). Construct validation of a Theory X/Y behavior scale.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31(2): 120–135.
- Liu, B. C. (1976).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S metropolitan areas*. Praeger.
- Loscocco, K. A., & Roschelle, A. R. (1991). Influences on the quality of work and nonwork life: Two decades in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2), 182–225.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Maslow, A. H., Frager, R., & Cox, R.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Vol. 2)*. J. Fadiman, & C. McReynolds (Eds.). New York: Harper & Row.
- Mathes, E. W., & Edwards, L. L. (1978). An empirical test of Maslow's theory of motivation.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8(1): 75–77.
- McClelland (1962). Business drive and national achievement. *Harvard Business Review*, 40(4): 99–112.
- McGregor (1960). *The human side of enterprise*. New York, 21.
- Mitchell, T. R. (1982). Motivation: New direc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7(1): 80–88.
- Moorhead, G., & Griffin, R. G. (1992). *Organization behavior*. 3rd ed.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
- Morretti, M., & Higgins, E. T. (1990). Relating self-discrepancy to self-esteem: the contribution of discrepancy beyond actual-self rat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108–123.

- Morris, D., & McAlpin, M. (1979). *Measuring the Condition of the World's Poor*. Pergamon Press.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Oxford, England: Oxford Univ. Press.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Nussel, E. J., Wiersma, W., & Rusche, P. J. (1988). Work satisfaction of education professor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9(3): 45–50.
- Ouchi, W. (1981). Theory Z: How American business can meet the Japanese challenge. *Business Horizons*, 24(6): 82–83.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
- Schneider, B., & Alderfer, C. P. (1973). Three studies of measures of need satisfaction in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89–505.
- Seeley, E. (1992). Human needs and consumer economics: the implications of Maslow's theory of motivation for consumer

- expenditure pattern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21(4): 303–324.
- Sheth, J. N., Newman, B. I., & Gross, B. L.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2), 159–170.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1-4), 475–492.
- Siegel, L., & Lane, I. M. (1987).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Irwin.
- Sirgy, M. J., Efraty, D., Siegel, P., & Lee, D. J. (2001). A new measure of quality of work life (QWL) based on need satisfaction and spillover theo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3): 241–302.
- Sirgy, M. J., Widgery, R. N., Lee, D. J., & Grace, B. Y. (2010). Developing a measure of community well-being based on perceptions of impact in various life domai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2), 295–311.
- Veenhoven. (1999). The four qualities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_____, (2012). *Social development and happiness in nations (No. 2012-03)*. ISD Working Paper Series.
- Wahba, M. A., & Bridwell, L. G. (1976). Maslow reconsidered: A review of research on the need hierarchy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5(2): 212–240.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ffecting happiness

– Focused on the E.R.G. theory –

Min Ji Oh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need fulfillment factors on happiness based on Alderfer (1972)'s ERG theory. By adopting bottom-up spillover theory, it could be inferred that fulfillment of everyday-life satisfactory leads to happiness.

Examining happiness based on needs theory, this research holds the following academic values. Firstly, this research extends the theoretical range of both happiness and need theory. In Addition, by using public administrative perspective, there is a policy implication proposing the role of government about individual happiness. Furthermore, measuring individual happiness of 10,450 male/female adults who live in Republic of Korea represents population of the

research well, which also strengthens the external validity compared with any other precedent study.

Independent variables are Alderfer's three basic needs: Extendence needs, Relatedness needs, and Growth needs. Individual happiness is dependent variable.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The research analysis shows that all of three basic need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happiness, and the fulfillment of growth needs have higher effects on happiness than other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under hierachi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ve power of the dependent variable was added when the numbers of independent variables are increased.

Keywords : happiness, public happiness, needs theory, bottom-up spillover theory, need fulfillment

Student Number: 2013-21903